

제17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

1. 일 시 : 2009. 12. 3(목), 16:30~21:00

2. 장 소 :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

3. 참 석 : 총 13명 중 9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이일영 의장, 이원희 부의장, 이순일, 유승화, 최인규, 김찬영, 이해진, 김관균, 박윤규 평의원 (기획팀 진성호)
- 불참 평의원 : 박상호, 오상탁, 이화숙, 유승익

4. 회의안건

가. 보고사항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개정 및 「대학평의원 추천 규정」 제정 공포

나. 의안(심의사항):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공학연구소 소속이었던 분자과학기술연구센터의 전문화 연구기관 선정(한국연구재단)에 따른 별도 기구표 표기
- 지원기관 명칭 변경(한불기술협력센터→불어권협력지원센터)
-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학과폐지(기술경영협동과정, 한국학협동과정, 지역연구학협동과정, 인지과학협동과정, 신경과학기술협동과정 및 학과 명칭 변경(협동과정→학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내용(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대학원별로 정함) 개정
- 2010-1학기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정원 표기
- 대학원 과정의 재입학 범위 내용 수정
- 대학원 과정의 전과신청 및 허가시기 변경
- 일반대학원 학점교류 성적인정 내용(일반대학원 학점교류에 의한 성적인정은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이내) 추가

5. 개회선언

의장 이일영 : 재적평의원 13명 중 9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

< 간서명 란 >

의 장  - 1 -

고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 진성호 : 오늘 보고사항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개정 및 대학평의원 추천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정관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제32조(대학평의원의 위촉) ①항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대학평의원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로 변경하였으며, ③항의 경우 후임 대학평의원 선출을 임기만료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 대학평의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보충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포된 대학평의원 추천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원 및 직원대표 대학평의원의 경우 선출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원대표 선출위원회는 각 단위소속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위소속의 장 및 단위소속의 선출위원회 정원은 총장이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대표 선출위원회 구성의 경우 임시대표로 본교 총무부처장과 의료원 행정부원장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포된 대학평의원 추천 규정을 근거로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문 및 교외대표 대학평의원은 확정되었으며, 학생대표는 금주 내에 추천될 예정입니다. 직원대표 대학평의원 추천의 경우 학내 홈페이지에 선출위원 후보대상자의 추천 의뢰 내용을 공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대표의 경우 교원대표 선출위원회 구성을 위한 단위소속 정원 및 단위소속의 장에 대한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보고사항이지만 한 말씀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보셨습니까? 직원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 특히 직급제한과 관련하여 차기 평의원회 위원선출에 직원이라면 아무도 응하지 말라’ 이런 공지를 띄운 것을 보았습니다. 교수회는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평의원회라는 것은 대학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각 대학구성원들이 자율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평통자문위원을 뽑는 것도 아닌 데, 형식적인 절차가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학교가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 간서명 란 >

의 장  - 2 -

어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정관개정(안)을 보면 고등학교 정치학 시간에 배운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도 그런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이 될지, 무슨 기능을 할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특히 교수회 운영규칙 같은 경우는 학교 본부가 나서서 책정한 것 아닙니까? 과연 대학평의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쯤 이사회에서 규정을 바꾸었는데 바꾸면서 교수회를 삭제했습니다. 교수회에서 교수 평의원을 뽑는데 교수회가 없어졌으니까 뽑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든 겁니다.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천위원회에서 평의원들을 뽑는다는 겁니다. 교수회에서 대의원을 추천해서 대의원을 중심으로 평의원을 뽑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동안 교수회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운영을 했고 그것은 사실은 총장의 허가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묵인해 버린 겁니다. 교수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평의원회는 유지해야하므로 이러한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평의원들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총장실에서 이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전부 무시하고 이러는 것은 완전히 교수사회를 부정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지금은 총장님이 지명한 형태로 가는 건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선거방식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선거라고 하지만 교수회라고 하는 합법적 근거를 없었습니다. 교수회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교수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추천위원을 각 대학에서 뽑아서... 사실은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시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회에서 관련 안전을 상정하여 처음에는 이 안전이 부결되었습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이사정수 12명 중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한명이 모자랐습니다. 참석 이사 9명중 8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총장과 개방이사가 반대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후에 다시 소집을 해서 이사 한명을 더 끌어다가 8:2

< 간서명 란 >

의 장



- 3 -

로 통과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같은 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총장이 반대하고 개방이사가 반대하면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이것에 의해서 뽑아라 하면 뽑을 수밖에 없겠죠. 모든 일련된 행태를 우리는 accept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총장을 우습게, 교수를 우습게 바라보는... 참 거기에 대해서 교수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째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수사회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또 그 다음에 지난번 중앙일보 대안 나온 것이 모든 게 교수들이 잘못되어서 우리학교 전체 평가가 떨어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난 몇 년 추이를 보면 교수들의 업적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떨어진 것은 전부 재단의 평판 이런 게 떨어진 거지 교수의 업적이 떨어진 것은 아닌데 교수들만 들볶는 대책을 내놓았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교수회하고 교수협의회하고 다른 겁니까?

의장 이일영 : 교수협의회는 정관에 없는 모임입니다.

부의장 이원희 : 법적으로 말하면 교수협의회는 임의기구고, 교수회는 사립학교법상의 정식 법정 기구입니다.

평의원 유승화 : 이것을 오늘 왜 여기서 보고를 합니까?

평의원 이순일 : 지난번 규정에 의하면 저희 임기가 12월 19일에 종료가 됩니다. 11월 18일에 교수회에서 후임들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그 분들이 추천이 되었으니까 다음 기수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 됐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던가 했어야 하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날 11월 18일 아침에 이사회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정관에 의하면 새로운 후보들이 추천되어야 하는 마지막 날 회의를 해서 그 정관을 없앤 겁니다.

의장 이일영 : 사실은 교수회에서는 성명을 통해서 총장실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정관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정관에서 빠진 교수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관에도 없는 교수회가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 이 얘기가 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부의장 이원희 : 구태여 법적으로 얘기 하자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게 11월 18일 이
죠?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게 아닙니다. 그전에 정관을 먼저 고쳤습니다. 9월 25일에 고
쳤고 규정을 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9월 달에 교수회가 정관에서 없어진 겁니다.

부의장 이원희 :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정관변경이 유효하려면 3분의 2이상이 되어
야하는데, 11월 6일 이사회에서는 부결되었잖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전에 먼저 9월 25일에 정관은 바꿔놓았고, 11월 18일 이사회
대학 평의원 추천 규정 제정(안)을 심의하여 가결한 것입니다.

부의장 이원희 : 그러면 11월 6일에는 정관 변경에 관해서 의결할 필요가 없었겠네
요?

평의원 이순일 : 교수회의 권한에 대한 것은 9월에 한 것이고, 평의원회 구
성에 관한 것은 11월 18일에 한 겁니다.

부의장 이원희 :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11월 6일 안건은 부결이 되었고 원래대로
하면 이사회를 아무리 자주해도 한 달에 한번 하는데, 이번에는 11월 6일에 하고
11월 18일에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11월 18일에 3분의 2가 찬성으로 의
결을 해서 그 정관이 효력을 가지려면 교육부에 갔다 와야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9월 25일에 이미 갔다 와서 바뀌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 8월말에 결정된 것은 정관에서 교수회를 삭제하고, 그러면 교수회에
서 평의원을 추천할 수 없잖아요. 추천위원회를 만들든 새로운 것에 의해서 만든다
거기까지만 결정한 겁니다. 9월에 이미 교수회가 정관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수회는 정관에 있는 교수회가 아닙니다. 정관에 있는 교수회는 없기 때문에 추천
할 수 없고 이것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추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의원 유승화 : 저의 질문은 오늘 왜 이것을 보고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이 아니라 정관 개정 및 「대학평의원 추천 규정」 제정
공포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대학평의원회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드리는 것
이며, 이미 대학평의원회 관련사항은 대학평의원 회의에 보고하기로 대학평의원회에
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이일영 : 오늘 저녁 먹자고 했는데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가지고 온 거죠.

평의원 이순일 : 그럼 제가 거꾸로 기획처장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태가 정상입니까, 지금?

기획처장 김민구 : 그건 저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학평의원회 추천규정이나 정관을 심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보고사항이므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일영 : 오늘 이것을 만일 통과 안하면 새로 평의원을 구성하지 못합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이것은 보고사항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학칙개정(안) 입니다.

평의원 최인규 :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일 총학생회에서 이사회가 하는 일이 맘에 안 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투쟁을 했을 경우,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총학생회를 빼면 앞으로 학생대표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최인규 : 그러니까 교수회가 없어지듯이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서 총학생회를 빼면 총학생회도 인준 받지 못한 비인준 기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학생회는 고등교육 상위법에 있고, 교수회는 없습니다. 다만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선출위원 직급제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겁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정관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대학평의원회 추천에 대한 규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법인에서 만들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니까 직원대표 선출은 퇴행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은 평의원 선출에 있어 직급제한도 없애자고 하는데,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선임하는 임시대표를 총무부처장, 행정부원장 등이 맡는다니, 퇴행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결국 이렇게 되면 합법기구로 있던 교수회의 역할을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구조적으로 제외한 겁니다. 대학평의원회가 1년 동

< 간서명 란 >

의 장  - 6 -

안 활동한 내용을 보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은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때는 교수회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대학평의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할 때는 교수회에서 미리 검토한 결과에 기초해서 진행하여 온 것이 중요한 예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교수회가 지금 학칙 상에는 있는 기구입니다. 다만 정관에서 인정 안했다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인정 안하는 기구이고 학교에서는 인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왜 교수회를 만들었으면 그냥 정관에도 놔둬서 이사회에서도 인정하는 기구로 놔두시지’ 하시면서 반대를 하신 겁니다. 물론 학칙에는 들어있습니다. 교수회나 직원회는 학교의 기구입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인정을 안 하는 기구입니다.

부의장 이원희 : 각 대학평의원들이 총장님의 위촉을 받는 건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교수회는 학칙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구입니다. 다만 대학평의원을 뽑는 것은 과반수 이상 교수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는 겁니다. 총장이 임명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를 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교원대표 대학평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각 단위소속에서 선출된 선출위원으로 구성된 교원대표 선출위원회를 두되, 단위소속의 장 및 단위소속의 선출위원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곳은 평의원 선출위원이 열 명이 되고 어떤 곳은 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죠. 정원은 그렇게 정하지만 뽑는 사람은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언가 의견을 낼만한 곳은 선출위원 숫자를 줄이고 하는 일을 1차 정관개정 때 시도 했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고친 겁니다. 또 교수회에서 Conflict가 일어난다고 지적을 해줘서, 교수회에서 지적한대로 고쳤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진짜 문제는 대학 안에서 대학평의회와 교수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법에 따라 아주자동차대학과 아주대학교가 별도로 구성만 하였어도 이사회에서 이런 식의 정관개정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아주대학교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 간서명 란 >

의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 진성호 :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학칙 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8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학연구소 소속이었던 분자과학기술연구센터가 전문화 연구기관으로 선정(한국연구재단)됨에 따라 별표1 기구표에 분자과학기술연구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기관인 한불기술협력센터가 불어권협력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별표1(기구표)에 변경된 명칭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한불기술협력센터를 불어권협력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한불기술협력센터를 불어권협력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기존의 한불 양국관계에 머물지 않고 불어권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학과폐지(기술경영협동과정, 한국학협동과정, 지역연구학협동과정, 인지과학협동과정, 신경과학기술협동과정)와 학과 명칭이 변경(협동과정→학과)됨에 따라 별표2(일반대학원)를 수정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대학원별로 정하기 위하여 별표6~8(입학정원)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2010학년도 1학기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확정하여 별표6~8(입학정원)에 표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학원 과정의 재입학 범위에 관한 내용 수정입니다. 현재 ‘당해 학기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로 되어있는 문구를 ‘당해 학년도 입학 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는 대학원 과정의 전과신청 및 허가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자는 제2학기 또는 제3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일선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 문구를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자는 제2학기 및 제3학기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개시 전에 재학 중 1회만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학원 과정의 전과신청 및 허가시기를 변경하는 이유는 전과신청 및 허가시기의 혼란을 막고 효율적으로 학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일반대학원 학점교류에 대한 성적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이내’ 로 되어 있는 문구를 ‘일반대학원 학점교류에 의한 성적인정은 전공과목 학점

< 간서명 란 >

의 장  - 8 -

의 2분의 1 이내' 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칙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오늘 심의안건인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평의원 일동 : 네

의장 이일영 : 오늘 심의안건인 학칙개정(안)은 이대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김찬영 : 처장님, 아까 평의원회 정관에서 교원 대표로 교수회가 빠지고 직원회가 빠졌지 않습니까? 다시 바뀐 개정안에서는 어디서 추천을 하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선출위원회라는 것을 어떻게 꾸린다는 것은 만들어 놓았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팀 진성호 : 선출위원회가 구성된 후 선출위원회에서 대학평의원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김찬영 :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개정된 정관에서 교수회가 삭제되고 직원회가 삭제되면서 그 자리에 선출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직원대표 대학평의원은 임시대표가 선출위원의 선출절차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대표 대학평의원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규정 3조에 보시면 ①교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교원대표 선출위원회를 둔다. ②선출위원회는 각 단위소속에서 선출한 선출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위소속의 장 및 단위소속의 선출위원의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총장은 교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출위원회의 구성을 각 단위소속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그 밑에 보시면 선출방법이 각 단위소속의 선출위원은 소소교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득표 순으로 선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총장은 교수회가 있으니 교수회를 존중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 보았고, 지난번 대의원회에서는 그렇게는 따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총장님은 할 수 없이 단과대 학장들에게 선출위원을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라는 얘기를 하겠죠. 교수회에서

< 간서명 란 >

의 장  - 9 -

는 자기네가 일부러 방해하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출위원회 구성하여 주시면 거기서 교원대표 대학평의원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이 상황을 굉장히 암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쪽으로 낭떠러지로 밀어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평의원 김찬영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학평의회 구성자체를 아예 안 되게끔 하려고 개정했다고 보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는 이것에 응하지 말자고 의결을 하고 오늘 공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총무부처장이 누군가를 지명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수락하면 그 사람이 과연 직원회 대표 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수대표 대학평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평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평의원 선출위원을 선정하는데, 단위 소속 별 선출위원 정원을 총장이 정하는 제도 하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원대표 선출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때 과연 이를 통해 교수들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의 선출이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학교에서는 대학평의원을 구성할 때, 교수회 대의원을 뽑은 그 구성비로 해서 뽑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기타 안전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이 1기 대학평의원 마지막 회의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어지는 대학평의원과의 연속성을 고려하며 다음 대학평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1기 대학평의원들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의결을 통해 남겼으면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차기 대학평의회도 제1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구성원들을 정당하게 대표하도록 구성되고, 그 대학평의회를 통해서 대학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대학구성원들과 공유되고, 또한 대학의 운영 및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하는 장으로서의 대학평의원의 지난 2년간의 기능이 앞으로도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런 의견을 제1기 대학평의원의 이름으로 기타 안전으로 의결해서 기록으로 남겼으면 합니다.

의장 이일영 : 제2기 대학평의원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타 안전으로 의결하여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대학평의회 의장이 되시는 분이 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다시 맡으실 분들은 그런 채

< 간서명 란 >

의 장  - 10 -

널을 열어서 평의원회의 모든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열띤 discussion을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의결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다음 대학평의원회에서도 꼭 만들어나가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이 다음 차기에서 이걸 좀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얘기를 하지만 꼭 막혀가지고 전달도 안 되고 response도 없는 이것을 뚫는 작업을 내년부터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discussion을 일 년에 2번쯤 진지하게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면 최소한 그것만으로도 학교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소감도 좋고 각자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김찬영 : 학생회장으로 시작해서 임기가 끝나면서 졸업 앞두고 교수님들하고 선배님들하고 이런 회의 자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제가 학생회장 임기를 할 때도 평의원회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큰 채널이었기 때문에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오늘 회의 자료에서 개정안을 보니 아쉬운 면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총장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떠날 때까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졸업해서도 계속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졸업생 선배가 되겠습니다. 다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81학번으로 들어와서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작년부터였습니다. 올해 초에 와서 대학평의원회 하면서 모든 게 생소한 가운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 동안 학교에 와서 배우고 얻는 시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가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의원 유승화 : 저는 대학평의원에 도움이 많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대학평의원회가 재단, 학교와 평행선을 달리기 보다는 총장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을 나누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기타 안건의 내용은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니까 서한이나

< 간서명 란 >

의 장  - 11 -

이메일로 보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서 제안된 제1기 대학평의원회의 마지막 의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2기 대학평의원회도 제1기 대학평의원회의 경우와 같이 대학구성원들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둘째, 제1기 대학평의원회가 해 온 것과 같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학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제2기 대학평의원회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란다. 셋째, 제1기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때로는 대학 운영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지만, 더 많은 경우에 있어 대학발전을 위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런 과정에서 격한 논쟁과 토론이 많았는데, 이러한 치열한 토론이 제2기 대학평의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대학본부 및 재단에서는 대학평의원들이 내는 의견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뿐더러 대학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의 수용에 적극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1기 대학평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의결을 통해 남겼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의장 이일영 : 동의하십니까?

평의원 일동 : 네

의장 이일영 : 좋습니다. 제2기 대학평의원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타 안건으로 의결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의결사항 -

< 간서명 란 >

의 결



첫째, 제2기 대학평의원회도 제1기 대학평의원회와 같이 대학 구성원들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되기를 바란다.

둘째, 제1기 대학평의원회가 해 온 것과 같이, 제2기 대학평의원회도 학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학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기능을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

셋째, 제1기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때로는 대학운영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지만, 더 많은 경우에 있어 대학발전을 위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격렬히 논쟁하고 토론하였다. 이러한 치열한 토론이 제2기 대학평의원회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또한 대학본부 및 재단에서는 대학평의원들이 대학구성원들을 대표해서 내는 의견들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제2기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1기 대학평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의결사항으로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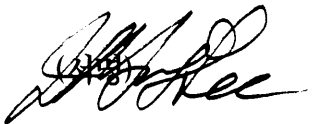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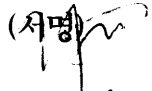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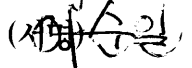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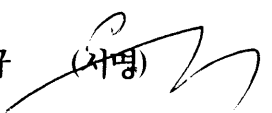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평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009년 12월 03일

의 장	이 일 영	(서명) 
부 의 장	이 원 희	(서명)
평 의 원	유 승 화	(서명) 
평 의 원	이 순 일	(서명) 
평 의 원	유 승 익	(서명)
평 의 원	오 상 탁	(서명)
평 의 원	이 화 숙	(서명)
평 의 원	최 인 규	(서명) 
평 의 원	김 찬 영	(서명)
평 의 원	김 관 균	(서명)
평 의 원	이 해 진	(서명)
평 의 원	박 상 호	(서명)
평 의 원	박 윤 규	(서명)
간 사	김 근 태	(서명)
기 록	진 성 호	